

「다문화교육에서 계급 문제」 토론문

이 중 일 (대구교육대학교)

필자가 토론할 논문의 핵심은, 기존의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다문화교육의 목표내용·교육방법(수업방법)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논자는 계급을 “(1)상호 구분되는 독립된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것과, (2)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의 주된 방향이 전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후자의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논리 전개의 방향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공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의 구성>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서론에서는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1)상호 구분되는 독립된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것과, (2)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것” 두가지로 구분하고 후자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II. 세계화와 다문화 상황의 형성 그리고 계급에서는, “1. 세계화와 이주,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형성, 2. 이주와 자본주의 그리고 국제 및 국내 계급불평등 형상”으로 구분하면서, 계급의 상호 연관성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III.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다루는 접근법 I: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접근법에서는 “1.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접근법, 2.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의 한계”로 나누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요청됨을 제시하고 있다.

IV.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접근법2: 계급간 관계를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에서는 “1.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2.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로 구분하고, 후자(2. 계급을 상호 연관된 집단으로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를, 그 하위에 “1) 다문화교육 목표에서의 변화, 2) 다문화 교육 내용에서의 변화, 3) 다문화교육 방법(에서의 변화)”로 나누고 있다.

V. 맺음말에서는, II·III·IV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 문제에 대한 독립된 이해가 있어야함은 물론, 계급간 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총체적인 변화(목표, 내용, 교육방법)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논의 거리>

1. 머리말 부분에서, 처음부터 ‘두 번째 접근법(IV.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다루는 접근법2 : 계급간 관계를 다루는 다문화교육접근법)이 왜 요청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면 합니다.

2. II장에서는, 문화편견이나 계급편견 등의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것보다, 계급간 상호 밀접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이주, 자본주의, 계급불평등 현상’을 근거로 ‘계급간 상호밀접한 관계성’을 짐작하게 하는 단순 기술에 그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계급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사회불평등)이란 현상 자체가 상호관련성을 전제한 것은 아닌지?

3. Banks가 주장한 5가지 차원 중에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문제를 다루는 접근법 I : 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접근법이, ‘내용통합·편견감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지식구성·평등교수법·효능감 있는 접근법’ 세 가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한계를 III의 2절에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자의 접근법 I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과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아닌지?

4. 계급이라는 용어는 처음 출발부터, (소득지위·권력 등의 불평등한 배분을 전제한) 상호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에서, 특정 계급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기에, 논자가 주장한 다문화교육에서 계급을 상호 관련하여 보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원래의 계급이론으로의 회복(환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 다문화교육에서 이러한 원래의 모습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전자(계급을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 문화집단으로 다루는 접근법)의 모습으로 전개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접근법 I)의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 한국에서만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미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여성학 인류학 등의 학문에서는 계급들을 상호 관련하여 이해하는데 반해,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문화교육 영역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다문화사회 현상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다문화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빚어지는 자체 모순 현상은 아닌지? 혹은 최근 다문화교육을 범교과적인 접근 등과 같은 분산 접근에서 오는 광범성에서 오는 한계가 아닌지?

5. 후자의 접근법에 따른 주요 차원으로 ‘지식구성·편견감소·평등교수법·효능감 있는 학교문화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교육방법으로 ‘인간관계접근법·단일문화연구접근법·다문화교육접근법’

문화사회정의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진술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토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